

새로운 조경수 수양겹벚나무



박형순
임업연구원 임목육종부

급속한 물질문명의 발달이 지구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정서 또한 도시의 딱딱한 환경보다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자연의 초록빛 풍경과 미풍에 한들거리는 나뭇잎의 노랫소리, 나무 아래 늘어진 시원한 녹음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리워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자꾸만 격리된 생활환경으로 밀려나고 있다. 넓어져 가는 포장도로며 고층화되어 가는 건물들, 삭막한 콘크리트건물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의 변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조경수에 대한 인식도는 과거와는 달리 수형, 꽃의 크기, 개화기

간, 꽃의 형태, 꽃봉오리 상태 등 다양하게 변화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면서도 도시의 미적 감각을 추구할 수 있으면서 지금까지 식재된 수종의 일률적인 수형의 가로수에도 변화를 주고자, 여러 종류의 벚나무 중 수형이 수양이면서 겹꽃인 가칭 수양겹벚나무를 새로운 조

경용 소재 및 가로수용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벚나무의 조경적 특성

가. 생육특성

벚나무류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그 종류가 20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벚나무류는 표고 1,600m 이하에 자생하며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많이 분포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수고 20m, 직경 90cm까지 자란다.



좌측:선발목 근경
우측위:꽃봉우리
우측아래:수양겹벚나무 선발목



내한성이 강하며 전국 어디서나 습기가 많고 평탄한 비옥지에서 생육이 왕성하며 생장이 매우 빠르고, 대기오염에 대한 적응성도 강하다. 벚나무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왕벚나무, 벚나무, 겹벚나무, 수양벚나무 또 새로 선발된 수양겹벚나무에 대하여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경기도 일원인 수원·과천·화성군, 대전시유성, 충남논산, 태안의 천리포수목원 등의 지역, 도로변의 가로수를 중심으로 벚나무의 개화특성, 개화시기, 만개기간, 개화기간, 낙화기 등을 조사하였다. 벚나무의 개화시기는 수양벚나무가 4월 11~19일, 왕벚나무가 4월 10~17일, 올벚나무가 4월 9~21일, 겹벚나무가 4월 16일~5월 3일이었다. 수양겹벚나무는 다른 벚나무에 비해 개화기간이 4월 13일부터 5월 5일까지로 일반 벚나무는 짧은 기간에 피었다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수양겹벚나무는 일반 벚나무에 비하여 개화기간이 13일이나 길었다.



▲고점

수양겹벚나무는 개화기간에서 수양벚나무의 개화 마지막 부분과 겹벚나무의 개화 초기가 겹치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두 수종간에 자연교잡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벚나무류의 개화기간은 다음<그림 1>과 같다.

나. 형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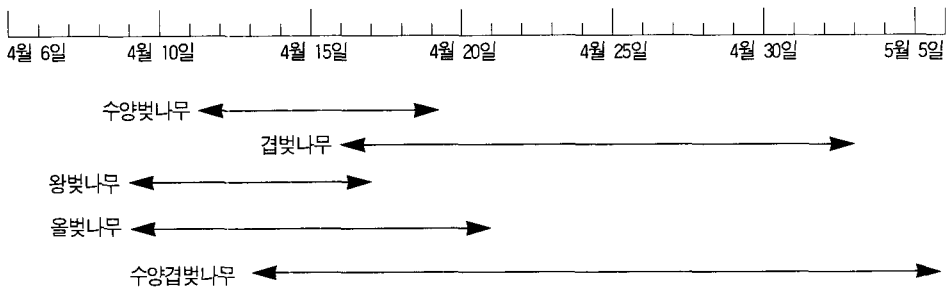
잎의 형태적 특성은 잎길이, 잎넓이, 잎자루길이를 각각 조사하였고, 품종별로 꽃의 수는 꽃이 많이 피는 곳에서 20cm 길이에서 절취하여 그 안에 있는 꽃의 크기, 꽃의 수, 소화경 길이, 한 개의 꽃잎수, 암술수, 수술수 등을 조사한 결과 산벚나무가 18~21개, 수양벚나무 37~40개, 겹벚나무 38~41개, 수양겹벚나무 43~46개 왕벚나무 95~102개로 나타났다.

수양겹벚나무 꽃은 짧은 산방화서에 5~6개가 달리며, 꽃잎은 타원형 암술술에서 털이 있고 잎보다 먼저 백색 또는 연분홍색으로 피며 화주에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열매는 둥글고 지름 1cm 내외로서 5~6월에 흑색으로 익는다. 수양겹벚나무는 열매가 많이 달리지는 않으나 일반 수양벚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

벚나무류의 번식방법

가. 실생묘증식

종자는 6월 중순을 전후하여 검은 빛으로 완숙된 것으로 채



<그림 1> 벚나무류의 개화기간 비교

취하여 과육을 제거한 다음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바로 파종을 할 때는 7월에 종자를 채취 즉시 파종한다. 봄에 파종을 할 때는 모래2에 종자1의 비율로 섞어 노천매장한 다음 이듬해 파종을 한다.

○매장된 종자가 너무 습하지 않도록 배수관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노천매장을 할 때 쓰이는 흙은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파종하기 전 이른봄에 너무 일찍 매장된 종자가 발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지 쪽에서 실시한다.

위의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빗물 혹은 건수가 스며들어 습도가 너무 높으면 종자가 썩어버리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파종할 곳이 선정되면 완숙 퇴비와 비료, 살충제를 포지에 뿌리고 가을에 미리 경운해 두



▲포지에 식재된 묘목

는 것이 좋다.

종자의 파종량은 묘목의 규격 및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빗나무는 다른 수종에 비하여 생장이 빠르고 잘자라므로 좀 드물게 파종하면 충실한 묘를 생산할 수 있다. 종자의 간격은 사방 4cm 간격으로 뿌리면 적당하다. 묘목의 출하는 1년생으로 묘목을 전부 굴취하여 출하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 2년생을 생산하여 출하하면 1년생 묘목가격의 2~3배 가량의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으며, 남은 묘목은 매우 신속하게 성장하여 경영상 매우 유리하다.

나. 접목묘 증식

빗나무는 실생묘로 주로 번식되지만 새로운 수종을 번식할 때는 반드시 접목을 하여 그 수종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유전적 특성이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접목에는 주로 절접을 이용하지만 수종에 따라 눈접 고접도 실시한다. 수양형인 빗나무는 2년생의 묘목 1.5m~2m의 높이에서 2~3가지에 다 고접을 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품화 하여 그 이듬해 꽃을 볼 수 있는 수양빗나무를 만들어 생산한다. 특히 겨울철 온실(20±3℃)에서 접목을 하여 봄에 바로 이식을 하여 상품화하는 것이 좋다. 수종별로 4월에 접목활착률을 보면 산빗나무 24%, 왕빗나무 62%, 수양빗나무(고접) 47%, 수양겹빗나무(고접)는 64%로 나타났으며, 겨울에 온실에서 수양겹빗나무를 고접으로 접목한 것은 83%로 노지에서 봄에 접목한 것보다 활착률이 높았다.

맺는말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수양이고 꽃이 겹으로피는 빗나무를 육성하기위하여 개화기, 개화시기, 낙화기를 조사하여 다른 빗나무에 비하여 꽃이 아름답고 꽃의 개화기간도 긴 수양겹빗나무를 육성하였으며 이들 우수 품종은 접목을 통하여 보급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조경수**



▲접목에서 핀 수양겹빗나무